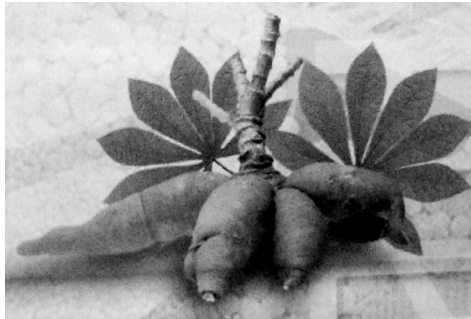


국가별 동향



태국

사료 대체 작물 '카사바' 인기



최근 높은 사료가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태국에서는 '카사바' 라는 덩쿨 뿌리식물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박과 거의 같은 성분에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카사바는 태국에서 다량 생산되고 있으며, 원료를 말려 1차 가공 후 수출이 되고 있다. 한국에도 일부 수출하고 있는 카사바는 중국과 EU에 대부분 수출되고 있으며, 일본, 홍콩, 대만 등에서도 수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료 원료의 대체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dft.moc.go.th>)를 참조하면 된다(출처 : DFT).



뉴질랜드

임신부 농장생활하면 아기 알레르기질환 위험 감소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 농장에서 살면 아기가 태어난 뒤 천식이나 습진은 물론 심지어 건초열까지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1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매시대학 연구팀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농장에서 생활한 많은 임신부와 아기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태어난 아기들이 자라면서 천식이나 습진 등 알레르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절반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유럽 호흡기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산모가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과 동물들이 갖고 있는 박테리아에 노출됨으로써 태아의 면역체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자신들의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시골지역과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비롯해 5세에서 17세 사이 농부 자녀 1,333명과 비교 대상 어린이 56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농장에서 자라는 가축들의 몸에 있는 세균들이 양은 물론 사람들에게까지 유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출처 : YTN).



미 국

방탄차 탄 KFC 요리비법

비밀금고에 갇혀 있던 치킨 할아버지의 조리 방법이 68년 만에 바깥 나들이를 했다. AP통신은 “세계적인 치킨 체인 KFC가 켄터키주 루이빌 본사 금고에 보관하던 조리 비법 용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창업자 할랜드 샌더스는 1940년 켄터키주 작은 레스토랑에서 11가지의 허브와 향신료를 섞은 자신만의 치킨 조리법을 만들었으며 1950년대 초반부터 KFC 체인점을 통해 이를 보급했다. 하지만 이 조리법은 지금까지도 베일에 싸여 있다. 회사 측이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철저히 감춰온 조리법이 세상 나들이에 나선 것 역시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귀한 몸인 만큼 수송 역시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송 작전을 위해 비번인 경찰관과 사설 경비원들이 고용됐으며, 비법 용지가 담긴 서류상자는 방탄차량에 실려 모처로 옮겨졌다(출처 : JOINS).



우간다/케냐



양국간 무역에 차질 빚어

케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로 우간다

산 가금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케냐 정부는 우간다 수출협회의 질병에 대한 보고체계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수입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ga Sekalala 우간다 양계협회장은 “자국의 모든 농장이 위생상 깨끗하기 때문에 더 이상 AI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양계업을 하는 많은 농가가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케냐 정부에 조속한 수입 재개를 요구했다(출처 : World Poultry).



브라질

타이슨푸드, 브라질 3개 육류회사 지분 인수

미국의 쇠고기 생산업체이자 2위의 닭고기 업체인 타이슨푸드가 브라질 내 3개 육류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브라질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슨푸드는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 주에 위치한 마세도 아그로인두스트리알(Macedo Agroindustrial) 및 아비콜라 이타이오 폴리스(Avicola Itaipolis)의 지분 전체와 역시 남부 파라나 주의 프랑고브라스(Frangobras) 지분 70%를 인수했다. 타이슨푸드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앞으로 브라질 내 5위 육류업체로 부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슨푸드는 “브라질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와 중산층 성장으로 1인당 육류 소비 증가가 확실한 시장의 하나”라면서 브라질을 거점으로 육류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EFE). 양계